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July 2025 Issue | Vol. 46

SPECIAL POINTS OF INTEREST

- 트럼프, “관계 상호적이지 않아” ... 마르코스에 보낸 서한에서 필리핀산 제품에 20% 관세 부과 밝혀 — page 1-2
- 상원의원, ‘긴하와(Ginhawa) 법안’ 의 세금 감면 조항 언급 — page 2
- 필리핀 노동부(DOLE): 5개 지역의 최저임금 검토 중 — page 2
- 4월 필리핀 외국인 직접투자(FDI) 급반등, 3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 page 3
- 2분기 GDP 성장률, 강한 내수 수요에 힘입어 반등한 것으로 보여 — 전문가들 — page 4-5
- 필리핀 산업, 장기적인 수출 문제로 부담 가중 — page 5-7

UPCOMING EVENT

- [일리버드 프로모션] 2025 아랑카다 필리핀 투자 포럼 —page 8
- [July 30, 2025] 제1회 그랜드 트라이컨티넨트 골프 챌린지 —page 9

트럼프, “관계 상호적이지 않아” ... 마르코스에 보낸 서한에서 필리핀산 제품에 20% 관세 부과 밝혀

July 10, 2025 | Cristina Chi - Philstar.com

마닐라, 필리핀 — (오전 11시 업데이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모든 필리핀산 제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며, 필리핀이 이에 보복할 경우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밝혔다.

백악관 명의로 된 이 서한은 7월 9일자로 되어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Truth Social)’ 계정에 필리핀을 포함한 여섯 개 국가에 보낸 유사한 관세 통보문과 함께 게시했다.

트럼프는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귀국이 관세를 인상하기로 결정한다면,

귀국이 정한 인상분 만큼을 우리가 부과하는 20%에 추가로 더하겠다.”

트럼프는 미국으로 제조 시설을 이전할 의향이 있는 기업에 대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며, 관련 승인 절차는 ** “수주 내에 빠르고 전문적이며 통상적으로 처리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20%의 관세율은 트럼프가 지난 4월 필리핀산 수출품에 대해 처음 발표했던 17%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캄보디아와 태국 등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각 3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인상의 이유로 “수년간 이어진 필리핀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 을 언급하며, 이것이 “지속 불가능한 무역 적자” 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이 “우리 경제는 물론 국가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 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This photo shows US President Donald Trump (left) during the inaugural parade in Washington, DC on Jan. 20, 2025 and Philippine President Ferdinand Marcos Jr. (right) at an event in Malacañan Palace on July 31, 2024.

AFP / Jim Watson; Bongbong Marcos via Facebook

필리핀에 대한 이번 관세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는 무역 공세의 일환이다. 트럼프는 또한 브라질과 구리 수입품에 대해 50%라는 초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들 조치 역시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처음으로 “상호주의 관세(reciprocal tariffs)” *를 발표했지만, 90일 간의 협상 기간을 허용하기 위해 시행을 연기했다.

그는 여러 차례 시한을 연장했지만, 이제 8월 1일이 최종 기한이며 더 이상의 연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은 미국과의 밀접한 군사 동맹 관계 및 남중국해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인해, 자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

17% 관세율에 대한 반응

미국이 필리핀 수출품에 대해 최초로 17%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말라카냥궁(대통령궁)은 그 영향을 경미하게 평가했다.

궁 대변인 클레어 카스트로는 이 조치의 잠재적 영향을 “매우 미미하다” 고 표현했으며, 필리핀 정부는 “양국 관계를 고려해 이를 수용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번 주 발표된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필리핀은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제리, 이라크, 리비아, 스리랑카에는 30%의 관세를, 브루나이와 몰도바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7/10/2456970/trump-sets-20-us-tariffs-philippine-goods-says-relations-not-reciprocal-letter-marcos>

상원의원, ‘긴하와(Ginhawa) 법안’ 의 세금 감면 조항 언급

July 09, 2025 | Butch Fernandez | BusinessMirror

BusinessMirror

서원 가차리안 상원의원은 수요일, ‘긴하와(Ginhawa) 법안’ 이 젊은 직장인, 최저임금 근로자, 그리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이들 모두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소득세 면제 기준을 현재의 25만 페소에서 40만 페소로 상향함으로써, 국민들의 지갑에 더 많은 돈이 남도록 한다.

가차리안 의원은 “긴하와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면, 연 소득 40만 페소 이하인 경우 한 달치 월급이 추가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 ‘납세자의 목소리’ 로서, 현행 세법 하에서 연 과세소득이 40만 페소인 사람은 소득세로 2만2,500페소를 납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긴하와 법안이 시행되면 이 세금 부담이 없어져, 음식, 교육, 건강관리 등 필수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생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급 2만5,000페소, 연간 32만5,000페소(13월 보너스 포함)를 버는 콜센터 직원은 긴하와 법안 적용 시 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월 314페소, 연 3,765페소의 추가 수입을 의미한다.

또한 월 3만3,000페소, 연간 42만9,000페소(13월 보너스 포함)를 버는 민간 간호사는 현재 월 1,424페소, 연간 1만7,085페소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긴하와 법안이 통과되면 이 전액이 절감되어 모두 저축으로 전환될 수 있다.

월 3만4,421페소, 연 44만7,473페소를 받는 3급 교사(Teacher III)의 경우, 현재는 매달 1,414페소, 연간 1만6,973페소의 세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긴하와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면 이들 또한 소득세를 전혀 낼 필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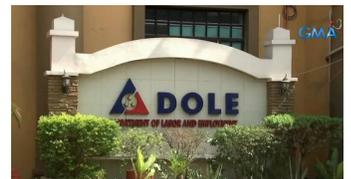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7/09/senator-cites-tax-relief-under-ginhawa-bill/>

필리핀 노동부(DOLE): 5개 지역의 최저임금 검토 중

July 10, 2025 | GMA Integrated News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는 목요일, 5개 지역 삼자 임금 및 생산성 위원회(RTWPB)가 이미 지역별 임금 명령의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5개 지역이 검토 절차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24년 5월, 대통령께서 각 지역 위원회가 최신 임금 명령의 발효 기념일 60일 전에 시기적절한 검토를 실시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라고 비엔베니도 라게스마 노동부 장관은 슈퍼 라디오 dzBB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검토 절차를 시작하는 지역이 추가로 5곳 더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24년 5월 마르코스 대통령이 지역 임금 위원회에 대해 마지막 임금 명령 발효 기념일 60일 전에 검토를 시작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 절차를 시작할 지역은 제1, 2, 3, 4-A, 7 지역이며, 그 후 다른 지역들도 순차적으로 따라갈 예정입니다,” 라고 라게스마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비엔베니도 라게스마 장관은 이번 조치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지난 2024년 5월에 내린 지역별 최저임금 검토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주에는 **NCR 삼자 임금 및 생산성 위원회(NCR-RTWPB)**가 메트로 마닐라 지역의 최저임금 근로자들에게 50페소의 인상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농업 부문은 하루 최저임금이 645페소에서 695페소로 인상되고, 농업 부문, 15명 이하를 고용하는 서비스 및 소매업체, 10명 미만을 정기적으로 고용하는 제조업체는 608페소에서 658페소로 인상됩니다.

이 임금 인상은 7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Sundy Locus/ VAL, GMA Integrated News

Source: <https://www.gmanetwork.com/news/money/economy/952132/dole-minimum-wage-in-5-regions-under-review/story/>

4월 필리핀 외국인 직접투자(FDI) 급반등, 3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July 10, 2025 | Derco Rosal | Manila Bulletin



간략히 보기

- 필리핀의 실물 외국인 직접투자(FDI) 순유입액이 4월에 6억 1천만 달러로 증가해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일본으로부터의 제조업 분야 투자 확대에 힘입은 것이다.

필리핀의 실물 외국인 직접투자(FDI) 순유입액이 2025년 4월 6억 1천만 달러로 증가하며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으로부터의 제조업 부문 투자 확대에 힘입은 것이다.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잠정 통계에 따르면, 4월 순 FDI 유입은 전년 동월의 5억 7천만 달러보다 7.1% 증가한 수치다. 2분기 초 기준으로는 2025년 2월의 7억 3천 1백만 달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BSP는 7월 10일(목) 발표한 성명에서 “2025년 4월에도 FDI 유입은 계속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으며, 일본으로부터의 유입과 제조업 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고 밝혔다.

특히 이번 증가세는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의 순투자 확대에 따른 것으로, 연간 기준으로 24.3% 급증했다. 이들의 채권형 투자는 4억 2천만 달러에서 5억 2천 2백만 달러로 증가했다.

채투자 이익도 8천 2백만 달러에서 8천 4백만 달러로 3.3% 증가했다.

반면, 채투자 이익을 제외한 순자본 투자액은 6,80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로 94.1% 급감했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전체 자본 투자 중 32%로 4월 가장 큰 투자국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미국(18%), 싱가포르(13%), 한국(13%), 대만(9%) 순이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전체 FDI의 47%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금융 및 보험업과 부동산업은 각각 16%씩을 차지했고, 나머지 20%는 기타 산업에 분포되었다.

4월의 긍정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올해 1~4월 누적 FDI 순유입액은 24억 달러로, 전년 동기 36억 달러 대비 33.4% 감소했다. 이는 1분기부터 이어진 하락세가 지속된 것이다.

필리핀 정부가 설정한 **2025년 연간 FDI 목표치 100억 달러에 비해, 현재까지 달성률은 24%**에 머물고 있다. 참고로 작년에는 총 89억 3천만 달러의 FDI를 유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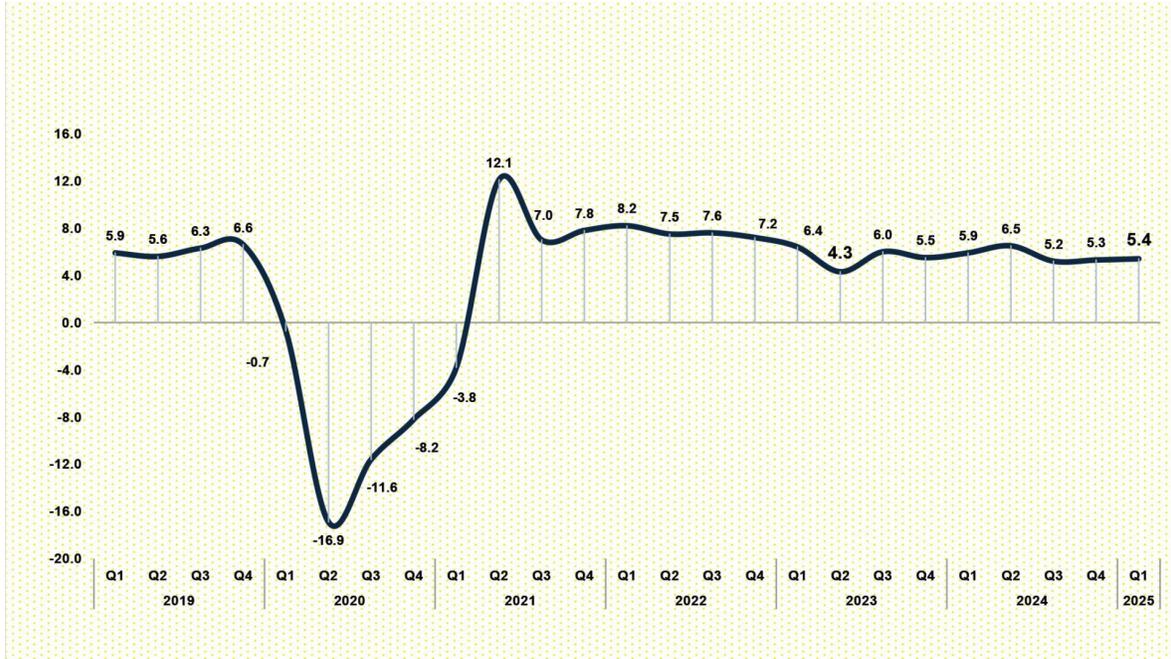
FDI는 외국인이 현지 기업의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형태의 국경 간 투자를 말하며, 이는 자본 투자, 이익 채투자, 또는 계열사 간 차입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Source: <https://mb.com.ph/2025/07/10/philippines-fdi-rebounds-strong-in-april-highest-in-three-months>

2분기 GDP 성장률, 강한 내수 수요에 힘입어 반등한 것으로 보여 — 전문가들

July 10, 2025 | Angela Celis | Malaya Business Insight



2분기 평균 성장률 5.78% 전망... 렉토 재무장관 “정부 연간 목표 범위 내”

2025년 2분기 필리핀 경제는 지속적인 내수 수요에 힘입어 평균 5.78% 성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이 밝혔다. 이는 가계 소비 확대, 물가 완화, 송금의 안정적 흐름 등을 반영한 것이다.

랄프 렉토 재무장관은, 경제 성장이 정부의 최신 연간 성장률 전망 범위 내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장의 원동력은 가계 소비, 정부 지출, 그리고 투자가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예측이 확정된다면, 2분기 경제 성장은 1분기의 5.4%에서 개선된 수치가 되며, 정부가 조정한 연간 목표치인 5.5~6.5% 범위 내에서 유지되는 셈이다.

‘물가 상승률, 통제 가능한 수준’

필리핀 개발연구원 (PIDS) 수석연구원 존 파올로 리베라(John Paolo Rivera)는 2분기 성장률을 5.6~5.8%로 추정했다.

그는 계절적 소비와 중간 연도 소비 증가가 수요를 끌어올렸으며, 물가 상승률도 관리 가능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견고한 성장 요인

리베라는 “서비스업과 필수 소비재 부문이 좋은 실적을 보였고, 초반에 더뎠던 정부 지출도 점차 확대됐다.

또한 관광과 해외 송금이 가계 소득을 뒷받침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수출은 여전히 부진했고, 세계적인 불확실성은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 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높은 불완전 고용률과 높은 금리가 부동산, 건설 등 투자 중심 산업의 성장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공공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핵심 산업을 뒷받침하면서도 긴축 속도를 조절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라고 리베라는 조언했다.

오이코노미아 어드바이저리 & 리서치(Oikonomia Advisory & Research)의 경제학자 레이니엘 매트 에레세(Reinielle Matt Erece)는 2분기 성장률을 약 5.6~5.7%로 전망했다.

그는 “보다 안정된 물가 환경과 개선된 기업 신뢰가 완만한 성장 회복의 배경이 되었다” 고 평가했다. [Cont. page 5]

2분기 GDP 성장률, 강한 내수 수요에 힘입어 반등한 것으로 보여 — 전문가들

[Cont. from page 4]

지속되는 위협 요인

레이니엘 매트 에레세(Reinielle Matt Erece)는 “내수 수요가 여전히 성장의 중심축이지만, 글로벌 무역 갈등과 투자 심리 위축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대학교(University of Asia and the Pacific)의 경제학자 시드 테로사(Cid Terosa)도, 낮은 인플레이션과 송금에 힘입은 견고한 소비 덕분에 성장률이 정부 목표 범위 내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는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성장을 억제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 지속적인 무역 긴장, 그리고 투자자들의 신중한 태도는 여전히 주요 장애물입니다,” 라고 테로사는 말했다.

리잘 상업은행(Rizal Commercial Banking Cor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리카포트(Michael Ricafort)는 서비스업, 중소기업, 관광 산업 전반의 회복을 근거로 6%의 비교적 낙관적인 성장률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인프라 지출 확대와 선거 전 지출 증가 또한 경제 활동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고 말했다.

정부는 2025년 8월에 공식적인 2분기 GDP 수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q2-gdp-growth-likely-picked-upon-strong-domestic-demand-analysts/](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q2-gdp-growth-likely-picked-upon-strong-domestic-demand-analysts/)

필리핀 산업, 장기적인 수출 문제로 부담 가중

July 11, 2025 | Andrea E. San Juan | BusinessMirror



The container yard seen from Dagat Dagatan, Caloocan on Thursday, July 10, 2025. The Philippines faces a 20 percent US tariff based on the newly signed letters from President Donald Trump on Wednesday.

필리핀 산업계는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수출 관련 문제들이 결국 현실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필리핀 제품의 최대 수출국인 미국이 관세를 인상함에 따라, 일부 공장은 운영을 중단하고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업계 지도자들은 경고했다.

《비즈니스미러》와의 별도 인터뷰에서, 필리핀의 다양한 산업 및 단체를 대표하는 관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필리핀산 수출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이후, 국내 제조업체와 수출업체들이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필리핀 외국바이어협회(FOBAP) 회장 로버트 영(Robert Young)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필리핀 공장들이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영 회장은 미국의 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둘째, 더 심각한 문제는 공장 운영을 중단하는 것인데, 이는 필리핀 경제와 노동 시장 모두에 있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게 될 문제입니다.”

“셋째는, 너무나 분명하지만, 결국 의류 산업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 구매 시장에서 필리핀 의류산업은 더 이상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과거 신발 산업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마와랄라 나 타요, 부라도 나 타요’ (우리 존재가 사라지고, 지워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영 회장은, “이제 필리핀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다시 계산해야 할 시점”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말로 매우,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20%의 관세가 부과된 만큼, 필리핀에게는 험난한 uphill battle(오르막 전투)이 될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다.

2025년 5월, 미국의 관세 정책 시행 전 90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 필리핀 의류 수출업 단체인 '필리핀 웨어러블 수출업 연합(CONWEP)'은 미국 시장에서 캄보디아, 베트남 등 아세안 경쟁국보다 낮은 관세율을 확보함으로써 의류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있었다.

[Cont. page 6]

필리핀 산업, 장기적인 수출 문제로 부담 가중

[Cont. from page 5]

“지금은 업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만약 캄보디아와 베트남이 17%보다 조금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아세안 경쟁국들의 관세율이 저보다 높다는 전체 하에 저는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한 줄기 희망입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점은, 베트남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 당초 46%였던 관세율을 20%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미국은 필리핀과 베트남에 대해 동일한 추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Jacson-Agoncillo는 앞서 워싱턴이 교역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기 전부터 필리핀 의류 산업은 이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녀는 두 달 전에도, 추가 관세가 없더라도 이 업계는 여전히 관세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전자 산업과는 달리 아무런 특혜 지위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5/26/survival-of-phl-garments-sector-rests-on-slapping-of-higher-tariffs-for-asean-rivals/>)

이러한 상황 속에서 Fobap의 의류 부문에 대해 Young은 비판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산업이 위축될 것이다. 우리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올해 우리의 목표는 약 10억 달러 규모의 의류 수출이었지만, 주문 취소가 발생하면서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수출하는 전자 부문 역시 마찬가지로 암울한 관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부문은 **필리핀 전자산업협회(EIAPI)**가 대표하고 있다.

EIAPI 회장 얼 로렌스 콰(Earl Lawrence Qua)는 《비즈니스미러》에 보낸 Viber 메시지에서, **미국이 필리핀 제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는 “결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콰 회장은 필리핀 전자산업계는 정부가 계속해서 미국 측과 협상을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다며, “왜 필리핀이 베트남과 같은 관세를 받아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1,16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필리핀은 50억 달러도 되지 않는다. 지금은 공급망 재편이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우리는 또다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그는 강조했다.

한편, EIAPI는 전자산업 중에서도 설계 분야에 더 집중하고 있다.

SEIPI, 반도체·전자산업에 대한 관세 검토 예정

한편, 필리핀반도체전자산업재단(SEIPI)의 관계자들은 오는 금요일, 반도체 및 전자 산업에 부과될 예정인 관세 조치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IPI 회장 노르베르토 비에라(Norberto Viera)는 Viber 메시지를 통해 “이번 새 발표에 반도체 수출품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을 확인해보겠다”며, “확실한 것은 반도체 부품 외의 다른 제품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성품으로는 “모듈, 또는 다른 국가에서 조달된 부품이 포함된 완제품”이 있다.

SEIPI 회장과 별도로, 단일로 코멘트를 낸 SEIPI 사장 다닐로 라치카(Danilo C. Lachica)는 “이번 20% 관세가 상호 관세인지, 전체 관세율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관세 대상에서 반도체와 전자 제품이 여전히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은 SEIPI 관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20% 관세가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필리핀 제품에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은 필리핀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단일 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이는 모든 분야별 관세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더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한 **우회 수입(Transshipment)**의 경우, 해당 높은 관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제 내줄 것도 없다” — 필엑스포트, 수출 중요성 강조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내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수출에 진지하게 임해야 합니다.”

필리핀 수출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필리핀수출자총연합회(Philexport)**의 입장이다.

Philexport 회장 세르히오 R. 오르티스-루이스 주니어(Sergio R. Ortiz-Luis Jr.)는 《비즈니스미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왜 필리핀이 예상보다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Cont. page 7]

필리핀 산업, 장기적인 수출 문제로 부담 가중

[Cont. from page 6]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는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입니다. 우리는 BRICS에 가입할 의사가 없고, 달러를 포기할 생각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런 입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원래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됐던 겁니다.” 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양보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줄 수 없을까요? 우리는 이미 BRICS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했고, 달러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했으며, 미국에 기지 사용도 허용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오르티스-루이스 회장은 덧붙였다.

오르티스-루이스(Ortiz-Luis) 회장은 필리핀이 “여기(필리핀)에 탄약 공장 설립까지도 동의했다” 고 밝히며, “이런 것들이 모두 협상 카드다. 중국과 거리를 두는 행동도 우리는 이미 취했다” 고 말했다.

Philexport 수장은, 베트남처럼 미국과의 협상에서 관세를 낮추는 데 성공한 국가들과 달리, 필리핀은 “내줄 것이 없는 반면, 그들(다른 나라들)은 줄 것이 많다” 고 평가했다. 베트남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자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46%에서 20%로 낮추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현재 필리핀의 새로운 20% 관세율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는 90일 유예 조치 이전의 17% 보복 관세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우리가 미국에 무엇을 더 제안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건 지정학입니다. 우리는 너무 작은 교역국이라 주목조차 받지 못합니다.” 라고 오르티스-루이스는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미국에 제안할 것이 있다면, 그나마 농산물 정도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여유가 없다” 고 말했다.

Fobap의 Young 역시 필리핀 협상팀이 보복 관세 인하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는 교환할 게 없었다. 이게 우리 업계의 현실이다. 베트남은 제안할 무언가가 있었던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게다가 필리핀은 교역 측면에서 영향력이 미미한 국가다. 우리가 다루는 물량이 너무 작다. 관세 발표 순서를 봐도, 필리핀은 거의 맨 마지막에 발표됐다는 걸 눈치챘을 것” 이라고 말했다.

오르티스-루이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필리핀 정부가 집중해야 할 방향에 대해 언급하며, 수출 및 국내 산업의 강화를 강조했다.

“우리는 아주 작은 플레이어다. 구조에 영향을 주지도 못한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바로 수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그는 힘주어 말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 단지 수출을 이야기할 뿐이고, 그러고는 수출이 저절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고 그는 비판했다.

오르티스-루이스는 한때 필리핀 수출이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빠르게 성장했던 시기를 회상했다.

“1989년쯤, 당시 **라모스 전 대통령(FVR)**이 노력해서 심지어 반도체 생산도 유치했다. 그 결과 우리는 21% 성장을 기록했고, 세계에서 가장 높지는 않더라도 아시아에서는 최고 수준이었다.” 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금은 예산도 거의 없다. 그러니 이제는 미국을 바라보는 대신, 신흥시장 개발과 신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Image credits: [Nonoy Lacza](#)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7/11/phl-industries-burdened-by-long-standing-export-issues/>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info@kccp.ph | www.kccp.ph

Be part of the **14th Arangkada Philippines Annual Forum**

ARANGKADA PHILIPPINES
**INVESTMENT
 FORUM 2025**

SEPTEMBER 25-26, 2025 | MARRIOTT GRAND BALLROOM

JOIN US FOR TWO IMMERSIVE DAYS OF

POLICY DISCUSSIONS
 Hear from **top policymakers, business leaders, and experts**

BREAKOUT SESSIONS
 Choose from three focused discussions on **priority sectors**

BOOTH EXHIBITS
 Visit **exhibits by government agencies and private companies**

INDUSTRY TALKS
 Hear invaluable insights from **industry experts and government leaders**


SCAN QR

REGISTER NOW!
 Visit arangkadaphilippines.com/forum2025 to view the agenda, learn about our new **Immersive Investors Pass**, and secure your slot!

ORGANIZED BY:

www.arangkadaphilippines.com  /Arangkada Philippines  /arangkadaphilippines  /ArangkadaPH  /Arangkada Philippines

필리핀 외국상공회의소 합동위원회(Joint Foreign Chambers, JFC)의 6개 회원 기관은 2025 아랑카다(Arangkada) 필리핀 투자 포럼의 등록이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아랑카다 필리핀 포럼은 2012년부터 필리핀 내 투자, 경제 개혁, 포용적 성장에 대한 고위급 논의를 위한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올해 포럼은 2025년 9월 25일(목)과 26일(금), **파사이스 메리어트 그랜드 볼룸(Marriott Grand Ballroom)**에서 개최되며, 정부, 민간 부문, 학계 및 언론계의 저명한 인사 수백 명이 모여 투자 유치 및 유지를 위한 전략과 비즈니스 성장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JFC가 선정한 7대 유망 산업인 △농업비즈니스(Agribusiness), 인프라, 제조 및 물류, 관광, 핵심 광물, 창의 산업, 정보기술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IT-BPM)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포럼 첫째 날에는 정부 및 기업 고위 관계자들의 연설과 함께, 해당 7개 분야에 대한 분과 세션이 마련되며, 둘째 날에는 기업 간(B2B), 기업-정부 간(B2G) 네트워킹 기회, 부스 전시를 통한 제품 및 사업 시연, 정부 서비스 및 투자 관련 주제를 다루는 산업별 심층 토론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필 상공회의소(KCCP) 사무국에 전화(+632-8885-7342) 또는 이메일(info@kccp.ph)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Scan to register!

JULY 30, 2025
THE MANILA SOUTHWOODS
LEGENDS COURSE

TOURNAMENT FEE:

INCLUDING GREEN FEE, CADDIE FEE
 GOLF CART (SHARING), LUNCH
 GIVE-AWAYS AND 1 RAFFLE STUB

P10,000 PER PLAYER

NOTE: 30% DISCOUNT FOR MSGCC MEMBERS

Play for your Team and have a chance
 to win a RT ticket to North America
 and 1 RT ticket to Asia sponsored by:



Gold Sponsors:



Silver Sponsors:



THE ALL AMERICAS TEAM
THE ALL ASIA & PACIFIC TEAM
THE ALL EUROPE TEAM

Golf Cart Sponsors:

ASCENSION



Bronze Sponsors:



Organized by:



Canadian Chamber
 of Commerce
 in the Philippines

Logistics, Raffle
 & Give-away Sponsors:

Supported by:



LOVE
THE PHILIPPINES



In cooperation with:



Media Partners:

